



터커

깨어나라! 해결사 본능 살아나라! 터커·최형우

T 타이거즈 전망대

주중 안방서 롯데와 3연전

이의리·김진욱 루키 대결 주목

주말 추신수와 승부도 관심

실종된 선발승·홈런포 찾아야

2021시즌에 없는 두 가지를 찾아야 승리를 만든다. 3연승 뒤 3연패에 빠진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 SSG 랜더스를 상대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주중 안방에서 롯데를 상대하는 KIA는 주말에는 문학으로 가 모습을 바꾼 SSG를 만난다. '슈퍼 루키' KIA 이의리와 롯데 김진욱의 프로 첫 맞대결로 뜨거워질 챔피언스필드, 주말에는 '적'으로 만나게 되는 추신수와 승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연패 탈출과 꾸준한 경기력이 속제가 될 새로운 한 주, KIA가 보물창고에 나선다. 개막 후 7경기를 치른 KIA는 3승 4패를 기록 중이다. 두산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브룩스가 기록한 7.1

이닝 2실점이 올 시즌 KIA의 유일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을 3자책점 이하로 막는 경우)다. 선발승은 아직 없다. 팀 유일의 퀄리티스타트가 기록된 날, 팀이 1-4 역전패를 당하면서 브룩스는 패전투수가 됐다. 또 4일턴으로 마운드에 오르기도 있는 브룩스는 9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다. KBO리그에 첫선을 보인 멧든도 두 차례 등판에서 5.2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으로 견고함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 11일 등판에서는 144km, 143km 직구를 각각 알테어와 김태군에게 공략당하며 2개의 투런포를 허용, 스피드 고민을 남겼다. 기대를 모았던 이의리가 5.2이닝 2실점의 호투로 눈길을 끌었지만 '승승'이 부족했고, 김현수와 임기영은 4회를 넘기지 못했다. 13일 이만우가 첫 주자로 나서서 마운드에 선발승과 함께 선발진 안정화가 필요하다. 타석에서는 '홈런'이 실종됐다. KIA에서 최형우만 유일한 홈런 타자다. 팀 홈런이 1개로 10개 구단 최하위. 홈런 1위는 NC로 11개다. NC는 지난 주말 3연전에서 KIA 투수들을 상대로 5개의 홈런을 뽑아냈다. 중심타자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KIA는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3연패를 기록한 주말 3

연전에서도 1회 모두 테이블세터진이 출루했지만 1점씩만 뽑는 데 그쳤다. 잔루는 4개가 남았다. '돌타자' 최원준이 지난주 2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종범, 장성호를 넘어 팀 내 최다안타 기록의 주인공이 됐고, 2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선빈이 26타수 14안타, 0.538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 쉬어가는 타순이었던 9번 자리에서도 박찬호가 키움전 스티브 주역이 되는 등 타순의 흐름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만 터커·최형우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형우는 유일한 홈런 타자지만 '갯'이 좋지 않다. 2021시즌 첫 타석을 병살타로 장식했던 최형우는 30타수 7안타로 0.233의 타율에 그치고 있다. 득점권 타율도 0.231에 머물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1루수로 변신한 터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33타석에 들어선 터커는 4안타(타율 0.133) 3볼넷만 기록했다. 득점권에서 단 한 차례도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장타율은 0.167, 출루율은 0.212다. 팀 공격력 강화를 위한 1루 전환이었지만 터커의 방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KIA의 공격이 막히고 있다. KIA가 실종된 선발승과 홈런을 찾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손흥민이 1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리그 14호골...한 시즌 최다골 동률

맨유 상대 전반 40분 선제골

2개월만에 골맛...팀은 역전패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상대로 리그 14호골을 터트리며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동률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유와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40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지난 2월 7일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과 23라운드에서 득점한 이후 한동안 정규리그에서 골침묵을 지켰던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2개월 여만에 골맛을 보며 리그 14호골이자 시즌 19호골(정규리그 14골·예선 포함 유투파리과 4골·EFL컵 1골)을 작성했다. 손흥민의 리그 14호골은 2016-2017시즌 작성한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14골)과 동률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12분 맨유의 프레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뒤 후반 34분 에디슨 카바니에게 역전 결승골을 내



줬고, 후반 추가시간 메이슨 그린우드에게 썬기골까지 허용하며 1-3으로 패했다. 승점 49에 묶인 토트넘은 7위 자리를 지켰고, 맨유(승점 63)는 선두 맨체스터 시티(승점 74)와 승점 격차를 11점으로 줄였다. 맨유는 전반 33분 스콧 맥토키니가 손흥민과의 경합을 이겨낸 뒤 돌파를 시도했고, 이 불을 이어받은 폴 포그바의 침투 패스에 이은 카바니의 원발슛이 골그물을 흔들었다.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맥토키니가 손흥민을 때리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반칙을 잡아내 골 취소를 선언했다.

맨유 골 취소를 유도한 손흥민은 마침내 전반 40분 골맛을 봤다. 손흥민은 전반 40분 루카스 모라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패스한 땅볼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원발로 방향을 바꿔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난해 10월 맨유와 4라운드(6-1승) 때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은 시즌 두 번째 대결에서도 골맛을 보면서 맨유 상대로 통산 3골째를 기록, '맨유 킬러'로 떠올랐다. 전반을 0-1로 마친 맨유는 후반전 대반격에 나섰다. 맨유는 후반 12분 카바니의 원발슛이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온 불을 프레드가 원발로 밀어넣어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기세가 오른 맨유는 마침내 후반 34분 메이슨 그린우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카바니가 골지역 정면에서 다이빙 헤딩슛으로 역전 결승골을 뽑아내 경기를 뒤집었다. 맨유는 후반 추가시간 포그바의 도움을 받은 그린우드가 오른발슛으로 썬기골을 꽂아 3-1 승리를 마무리했다. 비록 경기는 패했지만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7.5점을 줬다. /연합뉴스

KBO리그 2021시즌 모든 것 담았다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발간
프로야구 전문가 등 필진 참여

코로나 시대 야구는 느리고 조용했다. 지난해 예정했던 개막일을 한참 넘겨 시작한 KBO리그는 바쁜 일정을 치러야 했다. 빠듯한 경기 일정에 응원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아 선수들은 힘이 빠졌다. 2021시즌은 지난해 쌓은 경험을 살리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시즌을 준비했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리그에 새 바람을 가져올 변화도 뚜렷하다. 신생 구단 이 리그에 새로운 컬러를 입혔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이목을 끈다. KBO리그 2021시즌의 모든 것을 담은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2021'이 발간됐다. 김여울 광주일보 프로야구 전문가를 비롯해 고우라 SPOTVNEWS 야구기자, 이성훈 SBS 보도국 기자, 이용근 경향신문 기자,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 최훈 만화가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021년 자신의 포지션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야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12년 전통의 프리뷰북에는 각 팀의 단장과 감독을 비롯해 코치, 선수, 직접 구단을 운영하고 움직이고 플레이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야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생생한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생생한 KIA 타이거즈 정보를 제공하는 김여울 기자는 2021년 스카우팅 리포트와 KBO리그에 적응하며 선수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맷 윌리엄스 감독, 골목없이 스타플레이어로 정상의 자리에 있다가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이범호 코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밖에 프리뷰북에서는 팬과 구단, 모기업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쁘게 보내고 있는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 이제는 고참으로 흔들리는 팀을 지탱해주고 있는 정우람 선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최다 안타 타이틀 홀더에서 이제 방송중계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 모든 것이 재미있다는 박용택 해설위원, 친숙한 장성호 해설위원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300명 넘는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와 신선하게 접근한 칼럼, 카툰도 흥미로운 읽을거리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쓰야마, 아시아 선수 최초 '그린재킷'

PGA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우승
김시우 최종 2연타파 공동 12위

마쓰야마 히데키(29·일본·사진)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마쓰야마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열린 시즌 첫 남자 골프 메이저대회 제 85회 마스터스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연타파 278타를 기록한 마쓰야마는 2위 필 잼러토리(미국·9연타파 279타)를 1타 차로 제치고 마스터스 우승을 상정하는 그린재킷을 입었다. 마스터스에서 아시아 국제 선수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임성재(23)의 준우승이 기존 마스터스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이었다. 아시아 남자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2009년 PGA 챔피언십의 양용은(49)을 이어 마쓰야마가 두 번째다. 마쓰야마는 19세이던 2011년 마스터스에서 컷을 통과한 아마추어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실버컵'을 들어 올린 지 10년 뒤 프로로서 마스터스 정상에 섰다. 이번 우승으로 마쓰야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인 통산 6승을 달성했다. 이전까지 마쓰야마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은



2017년 US오픈 공동 2위였다. 마스터스에서는 2015년 5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마스터스 우승으로 마쓰야마는 우승 상금 207만달러(약 23억원)와 금메달, 클럽하우스 모양의 트로피를 차지하게 됐다. 쇼플리와 조던 스피스(미국)는 최종합계 7연타파 281타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온 램(스페인)이 마크 리슈먼(호주)과 함께 공동 5위(6연타파 282타)로 뒤따랐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김시우(26)는 이븐파 72타를 치고 최종합계 2연타파 286타로 공동 12위를 차지했다. 김시우는 2019년 공동 21위를 넘어 자신의 마스터스 최고 성적을 새로 썼다. /연합뉴스